



◆ [Focus]

- (중간선거) 양당 중간선거 공약 및 현안별 양당 반응

◆ [What's News]

- (수출통제) 미국, EU 측에 대중 수출통제 동참 요구
- (IPEF) 호주, 인도-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1차 협상 개최 발표
- (러우분쟁) 美 재무부,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적용 타임라인 설정
- (공급망) 서부해안 터미널 주요 교섭 난항, 추가 분쟁 위험 보도
- (배터리) 美 LG·GM 협력 배터리공장,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투표 추진 보도

◆ [Top Headlines]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1. [중간선거] 양당 중간선거 공약 및 현안별 양당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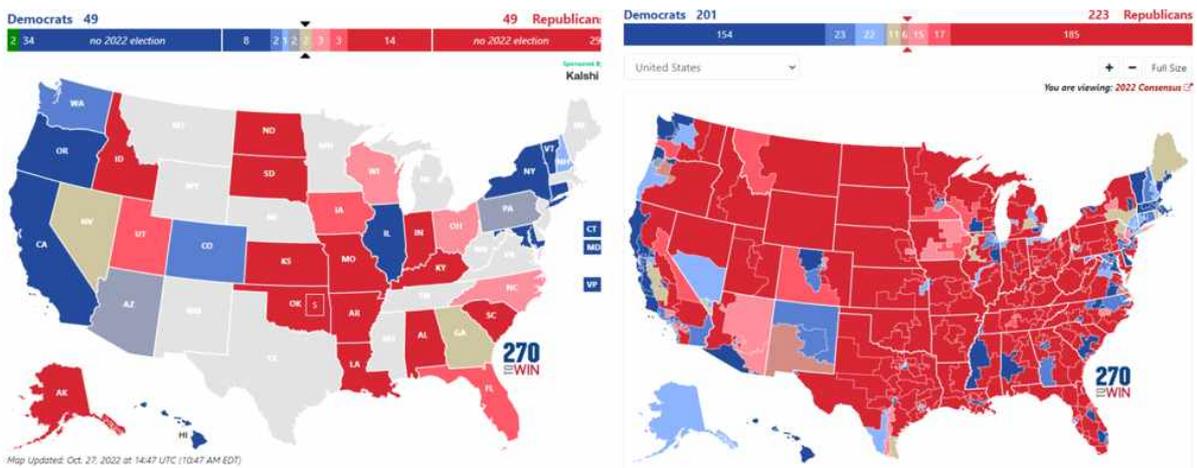
I. 미국 중간선거 동향

- 美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요 언론은 연일 선거 결과 전망 발표 중
 - 상원 선거는 초박빙인 가운데, 하원 선거는 공화당 승리가 유력(10.28)
 - '270toWin'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민주당이 상원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카멀라 해리스(Kamala Harris) 부통령의 상원 투표 권한으로 민주당이 과반(51 대 50)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
 - 현재 하원 구성은 총 435석 중 민주당 220석, 공화당 212석, 무소속 3석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선거 이후 하원은 민주당 201석, 공화당 223석, 무소속 11석으로 공화당의 우세 유력 예측
 - 유권자들의 중간선거 결과 예상
 - 'FiveThirtyEight'은 미국 내 사회 문제 대두로 인해 민감하게

반응하는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, 경제 둔화와 10월부터 거론되었던 '정권 심판론'에 힘입어 공화당의 약진을 예고

- 여론조사는 공화당이 상·하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40%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공화당의 승리를 전망 중이며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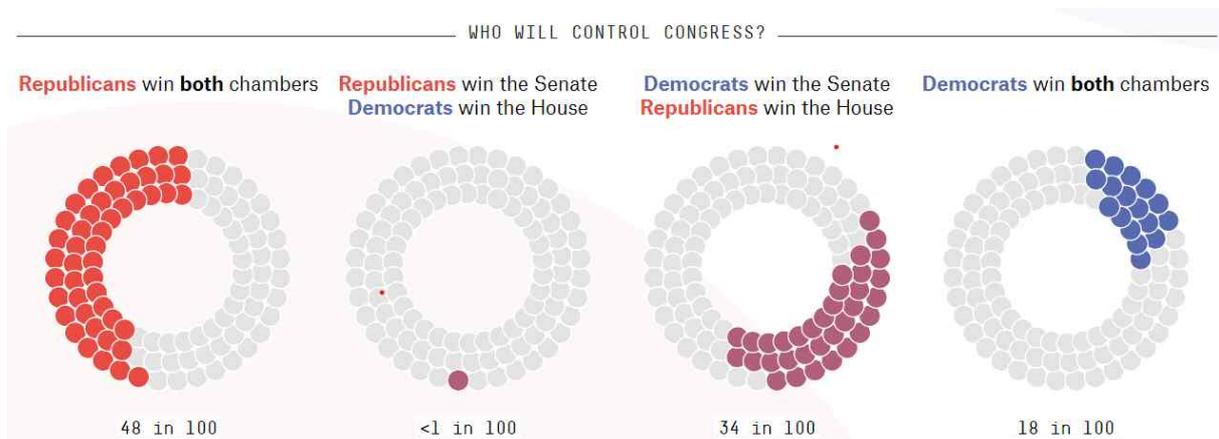
<2022년 상·하원 중간선거 예상>



(주 : 좌:상원 우:하원, 10.27 기준)

[자료 : '270toWin']

<중간선거 결과 예상 여론조사>



(주 : 여론은 공화당의 우세를 예상, 10.24 기준,)

[자료 : 'FiveThirtyEight']

□ 美 중간선거 최대 쟁점은 '경제'

- 주요 정책 여론조사 : 물가상승률(29%), 일자리·경제(15%), 총기사고(8%), 낙태법 논쟁(7%), 이민(6%), 기후·환경(6%) * 로이터 여론조사(10.17)
- 응답자 중 45%는 전년 대비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으며, 공화당(42%)이 민주당(31%)보다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
- 낙태 합헌 취소 결정 이후 여론은 낙태에 긍정적인 민주당에 기울었으나, 많은 유권자가 민주당 경제정책을 불신하는 상황 속 경제 이슈가 부상하며, 공화당 강세 전망에 힘이 실리는 상황

II. 양당 주요 선거공약

□ 민주당은 집권당인 만큼 '20년 대선 정강정책(Party Platform) 유지

- '20년 대선의 주요 공약을 차례로 달성* 중임을 강조하며, '24년 대선 전까지 민주당 주요 공약 달성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지층 집결 호소
- * 사회·인프라 법안 통과, 코로나19 완화, 친환경 정책 수립, 국내 제조업 활성화 정책 등
- 대선 선거전략인 만큼 미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총망라하지만, 러·우 분쟁,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위헌결정 등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견해는 제외되어 있음*
- *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은 주로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를 통해 현안 견해를 공개 중

<Party Platform 안건별 주요 내용>

항목	주요 내용
통상정책	·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중지 및 미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· 미국 제조업 부흥 및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
경제정책	· 더 나은 재건(Build Back Better) 법안을 통한 시설·사회 인프라 구축 · 법인세 인상(21→28%)을 통한 세수 확보 및 정부 부채 완화
공중보건 및 기후변화	·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및 사회보장제도(Medicare) 강화 · 2050 Net-Zero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연구 개발 강화
이민 및 디지털	· 숙련 노동자와 STEM 인력 수급을 위한 비자 발급·이민제도 개혁 · 대형 IT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, 사이버 보안 문제점, 반경쟁 시장 관행 조사

[자료 : 민주당 홈페이지]

□ 공화당은 선거전략으로 미국에 대한 헌신(Commitment to America) 제시

○ 선거 승리 및 '24년 대선까지의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회 심판론으로 선거전략 수립

- 선거전략의 주요 안건은 (1) 미국 경제 재건, (2) 안보와 치안 재건, (3) 미국인의 자유 수호, (4) 헌법을 통한 정부 권한 견제

<Commitment to America 안건별 주요 내용>

항목	주요 내용
미국 경제 재건	· 물가안정, 지출안정, 에너지 기업 투자 확대, 공급망 재건 · 제조업 확대, 중국 공급망과의 탈동조화, 경제 경쟁력 확대
안보와 치안 개선	· 미국-멕시코 국경 정비와 불법 이민·마약 유통 단속 강화 · 20만 명 이상의 경찰 추가 인력 충원 및 보너스 제공 · 중국 해군 증강 견제를 위한 하원 '중국 특별 위원회' 설치
미국인의 자유 수호	· 교육 및 국민 건강 증진과 대형 기술기업 견제 · (교육) 동성애, 낙태, 성전환 등 일부 이슈의 의무 교육 반대 · (보건) 민주당 국가 보험 제도 완화 및 선택권 존중 약속 · (기술) 페이스북, 트위터 등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사용 견제 및 온라인 서비스 내 정치적 또는 민감한 메시지 노출 관리
헌법을 통한 정부 견제	· 발언·종교의 자유, 총기 합법화 수호, 낙태 폐지 결정 유지 · 투표 시 신원조회 강화 및 부정 투표 방지 노력

[자료 : 공화당 홈페이지]

* 자료 : 백악관 보도자료, 양당 홈페이지, Bloomberg, The Hill, Politico, WSJ

□ (수출통제) 미국, EU 측에 대중 수출통제 동참 요구

- “美 정부, EU 측에 포괄적인 대중 수출통제 협력 촉구” 보도
 - 블룸버그(10.31자)는 미국 정부가 현재 가동 중인 대러 수출통제와 유사한 조치를 중국에 가하기 위해 EU에 공조를 요청했다고 보도
 - 미국이 EU 등 우방국과 협력하여 대중 수출통제(첨단기술 봉쇄, 정보 공유, 집행 공조 등 포함) 수위를 강화하기 위해 EU를 설득 중
 - 미국과 EU 통상 당국자는 12.5.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인 美-EU 무역 기술위원회(TTC) 논의를 위한 세부 협의 중
- 3차 TTC에서 양자 무역 관계 심화를 위한 실체적 성과 기대
 - EU 측은 TTC 진척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에 포함된 차별적 보조금 문제해결을 주장
 - 미국과 EU는 지난 10.25에 IRA 분쟁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, 차주 중에 첫 번째 회동 예정
- * 자료 : 블룸버그통신(10.31), 인사이드트레이드(11.1), 폴리τικο(10.31)

□ (IPEF) 호주, 인도-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1차 협상 개최 발표

- 호주-뉴질랜드 통상 장관 회담 후 공개한 공동 성명문에서 “호주는 12월 중에 IPEF 협상을 위한 1차 라운드를 개최한다.”라고 발표
-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호주가 공개된 IPEF 1차 협상 라운드 개최지 및 일정을 확인하며, 다만 동 회담이 장관급(ministers)이 아닌 고위급(senior officials)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힘.
 - IPEF 기존 14개 회원국에 추가로 최근 가입 의사를 밝힌 캐나다까지 15개 국가의 통상 고위급 관료 참가 전망
- 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10.30), 호주 무역관광부 홈페이지(10.30)

□ [러우분쟁] 美 재무부,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적용 타임라인 설정

- 재무부, 러시아산(産) 원유에 가격상한 적용 제재 시행시기 공개
 - 12월 5일 이전 선박 선적 및 1월 19일까지 선적물 인도에 한해서 적용을 면제하고, 12월 5일 이후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발표
 -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 차단 목적으로 기존에는 원유 배럴당 40~60달러 선의 범위의 가격으로 상한을 논의했으나,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3~64달러 선에서 가격이 책정 될 것으로 예측
 -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, EU 등 G7 국가 외에 참여하고 있는 동맹 국가가 적고, 가격상한제 도입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으로 석유 판매 거부 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점을 지적, 이번 추진 중인 가격상한제의 복잡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 보도
- * 한국은 비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한 상태, 뉴질랜드 노르웨이 동맹 논의 중
- ** 중국과 인도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

* 자료 : 재무부 보도자료 FAQ(10.31), 로이터(11.1), 뉴욕타임스(11.1)

□ [공급망] 서부해안 터미널 주요 교섭 난항, 추가 분쟁 위험 보도

- 미국 서부 해안 터미널의 계약 협상이 시애틀 항구의 가장 큰 터미널(T5)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위험
- 계약 협상은 지난 5월 10일 시작되었으나 항운사(MSC)와 터미널 운영자(SSA)가 주요 교섭 문제에 대해 이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
- 태평양해사협회(PMA)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제항만창고연맹(ILWU)은 하역업체 SSA마린이 회원들로부터 이 시설의 공정 권한*을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
- * 주요 이슈는 선박이 도킹된 상태에서 해안 잔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해상 잔적(cold ironing)
- 블룸버그 통신은 LA 항만청장을 인용하며 단기간 내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언급하면서도 파업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

* 자료 : 블룸버그(10.31)

□ (배터리) 美 LG·GM 협력 배터리공장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투표 추진 보도

-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배터리 합작 법인 얼티엄 셀즈(Ultium Cells LLC) 오하이오주 공장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투표 추진 중
 - 전미자동차노조(UAW) 위원장 레이 커리(Ray Curry)는 성명을 통해 얼티엄 셀즈 오하이오주 공장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노조 설립을 위한 청원서를 노동관계위원회(NLRB)에 제출하였다고 발표
 - * GM과 LG는 미국에 총 4개의 얼티엄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
 - 커리 위원장은 카드 체크 방법을 통해 노조를 결성하려고 하였으나, 사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관계로 NLRB를 통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노조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
 - * 카드체크 방식은 노조 가입 의사를 밝히는 노동자가 카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NLRB 주관 투표보다 빠르게 진행 가능
 - ** 따라서, 사측의 카드체크 가입 거부는 향후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잡으려는 시도로 분석
 - UC 버클리대학 교수인 할리 샤이큰(Harley Shaiken)은 얼티엄 셀즈 공장에서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기차 배터리공장 첫 노동조합으로 근로자에게 좋은 임금과 혜택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
* 자료 : 블룸버그(10.31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p>Russian Oil Is Fueling American Cars Via This Sanctions Loophole (제재 허점을 이용해 러시아산 석유가 미국으로 유입)</p> <p>https://www.wsj.com/video/series/in-depth-features/russian-oil-is-fueling-american-cars-via-sanctions-loophole/FB87120B-1DA2-40EA-A518-61CC9E2B409F?mod=hp_lead_pos7</p>
The Washington Post	<p>Hours before first deaths in Seoul crush, police received panicked calls (서울 이태원 참사, 집중 조명)</p> <p>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world/2022/11/01/south-korea-itaewon-emergency-transcripts/</p>
New York Times	<p>Supreme Court Seems Ready to Throw Out Race-Based College Admissions (대법원, 인종에 따른 대학교 입학제한 철폐 금지 움직임)</p> <p>https://www.nytimes.com/2022/10/31/us/supreme-court-harvard-unc-affirmative-action.html</p>
CNN	<p>For both parties, North Carolina Senate race is pivotal for 2022 and 2024 (노스캐롤라이나 상원 경선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미치는 영향)</p> <p>https://www.cnn.com/2022/11/01/politics/north-carolina-senate-beasley-budd-midterms/index.html</p>
USA Today	<p>Pelosi has faced years of violent, vulgar threats, FBI record Shows (펠로시 상원의장에게 가해진 위협의 역사)</p> <p>https://www.usatoday.com/story/news/investigations/2022/11/01/threats-against-pelosi-illustrate-violent-rhetoric-aimed-congress/10652669002/</p>

Notice

주요 경제통상 일정

11.01(화)	美 9월 신규 일자리 숫자 (Job Opening)
11.02(수)	美 11월 연준 정례회의 (FOMC Announcement)
11.04(금)	美 10월 실업률 (Unemployment Rate)
11.04(금)	美 10월 평균 시간당 수당 (Average Hourly Earning)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(행사안내) 2022 국제기구 주요기업 등 청년 취업설명회(11월 3일, 워싱턴DC)
- (자료발간)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반응(US22-35)
 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(Fed Now) 출시 전망 및 시사점(US22-34)
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(US22-33)
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(US22-기획4) * 10월 말 공개
 미국 프랜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- (인터뷰) 미국 상공회의소 Charles Freeman 선임부회장 인터뷰 업로드 예정(11월 초)
 메릴랜드주 래리 호건 주지사 인터뷰 Youtube 업로드 예정(11월 초)

